

601. 꼬박꼬박 월급을 ()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니 수입이 다 끊어졌다.
① 타다가 ② 말다가 ③ 뺏다가 ④ 져다가
602. 서울은 한국의 ()이기 때문에 각종 중요한 시설과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.
① 지역 ② 설정 ③ 수도 ④ 변화가
603. 아직은 시간이 ()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.
① 무관하니까 ② 넉넉하니까 ③ 바람직하니까 ④ 미지근하니까
604. 자꾸 이렇게 약속을 () 보면 나중에는 아무도 널 믿지 못하게 될 거야.
① 이끌다 ② 어기다 ③ 설레다 ④ 어긋나다
605. 아, (). 마실 것 있으면 좀 줘 봐.
① 배부르다 ② 날카롭다 ③ 짹짹하다 ④ 목마르다
606.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지가 한 인간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().
① 이른다 ② 키운다 ③ 미친다 ④ 늘린다
607. 아들이 어렸을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나무라기만 했던 게 ().
① 의심스럽다 ② 걱정스럽다 ③ 사랑스럽다 ④ 후회스럽다
608.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난리를 치다가 가게에서 ().
① 뒤쫓았다 ② 쫓겨났다 ③ 무너졌다 ④ 앞서갔다
609. 나는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신문지로 잘 ().
① 감쌌다 ② 꿰맸다 ③ 둘러쌌다 ④ 돌아갔다

610.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꽃 위에 살짝 ().
① 펼쳤다 ② 우겼다 ③ 내려앉았다 ④ 올려놓았다
611. 아빠는 햇볕이 좋다면서 집 안에 있던 화분을 모두 베란다에 ().
① 밀려났다 ② 벌어진 ③ 선보였다 ④ 내놓았다
612. 처음 본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사용하니까 매우 ().
① 불쾌했다 ② 주저했다 ③ 순수했다 ④ 흡사했다
613.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부모는 눈앞이 ().
① 담담했다 ② 캄캄했다 ③ 선선했다 ④ 만만했다
614. 어제 외부 행사가 있어서 계속 밖에 서 있었더니 다리가 ().
① 부었다 ② 늘었다 ③ 이었다 ④ 휘었다
615. 어젯밤에는 보일러가 고장나는 바람에 밤새 추위에 덜덜 ().
① 끝었다 ② 떨었다 ③ 섞었다 ④ 뚫었다
616. 여자는 커피숍에 들어서서는 빈 자리를 찾으려고 주위를 ().
① 지나쳤다 ② 물러났다 ③ 비틀거렸다 ④ 두리번거렸다
617. 아동의 성격 형성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().
① 내세웠다 ② 걸러졌다 ③ 쏟아졌다 ④ 밝혀졌다
618.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().
① 밝혔다 ② 부었다 ③ 빌었다 ④ 보살폈다
619.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는지 지난달에 보냈던 편지가 다시 ().
① 흠쳤다 ② 당겼다 ③ 헤맸다 ④ 되돌아왔다

620. 어머니는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아들이 무척 ().
① 촌스러웠다 ② 한스러웠다 ③ 걱정스러웠다 ④ 부담스러웠다
621. 여자 친구는 나에게 화가 났는지 아무 말도 않고 무섭게 ().
① 빼앗겼다 ② 알아냈다 ③ 노려봤다 ④ 바래다줬다
622. 나는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().
① 체했다 ② 집중했다 ③ 건네줬다 ④ 터뜨렸다
623. 에어컨이 고장 나긴 했지만 선풍기라도 켜니까 () 좀 낫다.
① 몽땅 ② 그저 ③ 마냥 ④ 그나마
624. 나는 수영을 못해서 물으로 들어가면 바로 () 버린다.
① 들어서 ② 떠나가 ③ 다가와 ④ 가라앉아
625. 나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신발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() 두었다.
① 묶어 ② 엮어 ③ 물어 ④ 빨아